

치유 서밋의 응답을 체험한 고린도교회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이사야 43:19-25, 고린도후서 5:15-21

정윤돈 목사님

오래 전에 읽은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한국의 한 회사원이 일본에 갔다. 중견기업과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갔다. 이 일본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붙여주어서 같이 일을 하게 했다. 그러는 중에 이 한국 회사원이 일하러 간 일본 회사의 간부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간부가 이 회사원과 같이 일하던 직원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다. “앞으로 저 친구가 이 회사의 대표가 될 것이다.” 가족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때 간부가 밝힌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 “첫째, 저 친구는 정직합니다. 둘째, 저 친구는 꾸지람을 받으면 달게 받고 자신을 바꿉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말 20년 후에 갔더니 대표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교회는 바울에게 심한 꾸지람을 받았는데, 자기를 바꾸었다. 이것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게 되었다. 칭찬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칭찬보다 꾸지람을 좋아한다.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성숙될 수 없는 사람은 꾸지람을 받지 않는다. 답을 쌓아놓았다. 받아들일 힘도, 인격도, 믿음도, 여유도, 마음도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성숙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다. 구원은 짧은 순간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단계가 있다. 천 단계, 만 단계가 있다. 그런데 한 단계 올라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에는 아픔이 있다. 왜 훈련을 안 받느냐, 왜 예배에 안 나오느냐 하면 아프다. 그러나 거기에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도전하고 이뤄야 할 다음 단계가 있다. 인격 성숙 단계에서도 그것을 과업 수행이라고 한다.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 유치원 때 과업 수행을 하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가서도 유치원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성인이 되어도 그런 인격으로 남게 된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속에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레마로 삼아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서론 :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들

신약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개의 서신만 나와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앞의 편지들의 내용을 알아야 고린도후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모르고 고린도후서를 보면 내용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집에 가면 드라마를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아무런 재미가 없다. 전후 과정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고린도교회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혹시 잘못을 했다 해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 것이 된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것이다.

(1) 첫째 서신은, 고린도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보낸 편지였다. 이것이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비복음적인 것 같고 매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온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누구누구는 음행하니까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언젠가는 복음이니깐 다 품으라고 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한다. 고린도교회는 상태가 연약했다. 신천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훈련이 된 사람은 마음껏 만나도 된다. 그들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단을 만나면 엔젤핀이 돈다. (웃음) 거기에서 꺼내주고 싶어서.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을 만날 때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술을 자꾸 마시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신자에게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고린도교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 말고 타락을 전하는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하니까 조심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미와 사랑의 여신이었다. 그래서 말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락된 사랑을 많이 했다. 신전 안에는 천 명이나 되는 매춘부들이 여사제로 있었다. 그게 그때의 문화였다. 그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돌아왔다. 주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다(행18:10).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체질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를 믿고도 세상 문화를 끊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에, 이런 내용을 두고 바울이 먼저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글을 쓰고 있다. 고린도전서 5:10에,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조심하라는 말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시지 않다. 손이 잘못하면 자르고 눈이 잘못하면 빠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것이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터부시하고 외톨이로 살라는 것은 아니다. 균형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시기 바란다. 세상에서 단절되라는 것이 아니다. 살려야 한다. 그러나 내 모습이 약할 때는 그들과 많이 교제하면 오히려 내가 힘들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2)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다. 교회 안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설명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너희가 이렇게 변화를 받으라’ 하고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고린도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세워진 교회였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많이 되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대단했다. 바울이 간다고 하니가 에베소로 따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자들이 교회를 다 떠나게 된 상황이었지 않나. 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 사역자가 필요했는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역자로 아볼로를 찾아 세워서 고린도로 파송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돌아온 것이다. 우리도 훌륭한 사역자들인데, 미국에 갔다가 상처 입고 돌아온 이들이 많다. 그때도 그랬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6:12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로 상처를 받은 것이다. 아볼로같이 똑똑한 제자도 그렇다. 부교역자 중에서도 상처를 입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3) 이렇게 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전달했지만 그래도 들지 않았다. 그러자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다.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한다. 눈물로 그들이 회개할 것을 강권했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4) 그리고 보낸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다. 고린도교회가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 것이다. 고린도교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교회였다. 우상과 타락, 그리스 철학이 가득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오히려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책망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못한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그렇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이 굉장히 아프고 쓰기 때문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들어도 그게 얼마나 아프는지 모른다. 이것을 약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큼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고린도교회는 영적 문제가 우리보다 더 많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웠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 아니다. 미움과 갈등, 수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교회에 준 해답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것이 고린도교회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주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목회자를 어떻게 바꾸겠는가? 정치인, 경제인, 엘리트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1. 고린도교회의 문제

그러면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1) 고린도교회의 문제는 창세기 3장, 교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교만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어거스틴은 원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했다. 칼빈은 원

죄의 뿌리를 불신앙이라고 했는데,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게 교만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여려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 교만에 빠지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나왔다. 자신의 지식과 이성의 범주 안에서 신앙을 재단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내용을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두고 겸손히 질문해 보아야 했다. 그랬으면 답을 얻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셔야 했다. 하나님만이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그 죄의 대가를 다 끝내려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했다.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감옥에 갔다가 나오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대가를 끝내신 것이다. 부활로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들은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믿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은 지적인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2) 고린도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복음을 듣고서도 창세기 6장의 네퍼림 문화와 체질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적 타락, 음란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 우리 램뉘트들을 보면 쌍꺼풀에 중독되어 있다. 성형에 중독된 사람도 많다. 외모에 신경쓴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것이다. 옷을 사고 사고 또 사야 한다. 그게 너무 심해지면 중독이 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로 타락 체질, 중독 체질이 치유되게 되기를 축원한다.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조금씩 바뀐다.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3)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의 울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나 중심, 성공 중심, 내 목적 달성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린도교회는 은사 문제로 다투고, 신앙과 신학 문제로 교파, 파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스도 십자가 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종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 복음이 여러분의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암송하고 듣게 되기를 바란다. 어느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2.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은 고린도교회

그러나 결국 고린도교회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1)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는가? 바울이 위로할 정도로 변화되었다. 고린도후서 1:3-7에는 위로라는 단어를 열 번이나 쓰고 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를 때렸다고 해서 온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어제 은메달을 따고 나서 울먹이면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안 떠오른다’고 하더라. 마음이 몽클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비난하고 정죄한다. 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충분히 알고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 하지 않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미워하고 이해하고 평가한다. 우리는 다 치유받아야 한다. 스케이트는 은메달을 땀지만 인생에서는 금메달을 땀구나 싶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진실하게 회개하는 태도는 아름답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다 옳고 너는 다 틀렸다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란다. 억울하다고 따지지 마라. 그것은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이다.

(2) 고린도후서 7:9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기쁨 정도로 회개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을 진정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잔소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교회가 회개했던 것이다.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을 때쯤 바울은 디도를 보냈는데, 만나기로 했던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해서 걱정을 하다가, 빌립보로 넘어왔을 때 거기에서 디도를 만났고, 거기에서 디도를 통해 고린도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이다.

(3)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 할 것을 권유할 수 있을 정

도로 회개했고 변화되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헌신하라는 것이다. 바로 헌금 이야기를 한다. 바울도 대단하다. (웃음) 고린도는 항구도시여서 부유한 곳이었다. 그런데 이에 비해 훨씬 가난했던 마케도나 다른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고 바울은 쓰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협박하는 것이다. (웃음) 변화되고 회개하자마자 바로 실천하는 여려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에베소, 아시아에 너무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에도 핍박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바울은 거기에 헌금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갈등과 문제 때문에 절대 헌신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바로 보낸 것이다.

결론 :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기 위한 열쇠

그렇다면 어떻게 고린도교회는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1) 우리도 미천하지요, 고린도교회도 미천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30군데 무당, 점집을 두고, 그 앞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30군데 무당집이 다 없어졌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려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300명 쯤 영접시킬 때까지는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눈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가서 무당도 살리고 귀신들린 자도 살려내고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치유하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 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잘 했다.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다. 항인중 중에서는 우리가 1등이다. (웃음) 나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보다 뛰어난 선전복지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잘 준비해서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이 천명을 각인해야 되겠다.

(2)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있다. 히틀러에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는데 한 절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목상하니깐 한 주가 다 지나도 다음 한 절로 넘어갈 수 없다는 기록을 남겼다. 모든 능력을 다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3) 고린도교회는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4) 고린도교회는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었다. 보배보다 귀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다.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다.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추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5) 그들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겠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또 훈련받아야 한다. 또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이번 평절에도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와 본부훈련으로 인도받았다. 훈련을 가면 갈수록, 불신앙이 없어져 버린다. 갈수록 은혜를 받게 된다. 물론 합숙 다녀와서 1주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웃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고, 숨 쉬듯이 말씀을 받으며 훈련을 받고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237개 나라, 엘리트들과 우상에 빠진 사람들, 후대들을 살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너무 많사오니,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와 훈련에 승리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나라와 세계가 변화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항상 저희를 버려두지 마시고, 저희를 그 수준에 정체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꾸짖어주시고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라, 영적 서밋에 오르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